

**날짜:** 5786 년, 11 월 18 일 (2026 년 2 월 5 일)

**토라 문:** Yitro (이드로)

**주제:** 비평에서 회복으로 까지

미드라쉬(Midrash)는 이트로(Yitro) 덕분에 추가된 토라의 구절이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는 모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대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살펴보라" (출 18:21)는 건설적인 지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구성은 토라의 기초 원칙을 드러냅니다. 즉, 토라는 비판을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영원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트로의 충언이 오늘날에도 영속하는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분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 그의 용기와 지혜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패턴의 원리가 마태복음 19:16-26 의 중심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호슈아 (Yehoshua)께 나아와 진지한 영적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모세께서 짊어졌던 책임량의 짐을 연상시킵니다.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으나, 기존 구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물리적인 한계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호슈아의 초기 응답은 정죄가 아닌 물리적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분은 계명을 지켰는지를 먼저 확인하셨고, 그 청년이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답했을 때 그의 진실성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트로처럼 예호슈아께서는 비판을 넘어 건설적인 요구로 나아가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따르라." 이것은 도덕적 질책이 아니라 삶 자체를 재구조화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토라의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모세의 단독 지도 체제가 비록 의로웠으나 변화 없이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순종과 소유에 익숙했던 청년의 영적 삶 역시 물리적 영적 영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분배'와 "내어놓음-내려놓음"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동일한 신성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전에 충족되었던 삶의 방식일지라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차이는 진리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응답**에 있었습니다. 이트로의 혈통 태생 예후다(유다)의 가르침에서 존귀히 여기는 '오즈(Oz)', 즉 영적인 용기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관찰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기존했던 낡은 방식을 해체하고 신성한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티쿰(Tikkun, 회복)'의 잠재적 순간을 마주했으나 자신을 정의해 온 구조를 놓아버릴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죄받아서가 아니라, 변화될 바를 미룬 "자기 미완성"의 현실을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예호슈아의 결론은 토라 및 영적 신비를 밝히는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구조적 변화는 의지만으로 결코 그 순간에 달성되지 않습니다. 집착을 늦추고 내면에서 발상하는 능력 그 에너지를 재편하며 숭고한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권능의 영으로 부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호슈아께서 살아계신 야훼의 말씀 곧, 리빙토라로서 그가 가르치신 토라의 교훈은 연약함으로 최상의 진리의 길에서 선택하지 않고 주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대신 더 숭고한 변화를 찾아서 돌아오는 문을 열어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쉐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트로를 기억하며 그의 생애를 정리한 미드라쉬의 결정은 이제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라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닦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9 장이 동일한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제시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최상 층의 천국"을 들어가는 네웨쉬(영혼)의 구원은 누구나 즉각 "이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의 문에 들어 간 그 후에 "용기 있는 생의재편성", 곧 거듭남과 지속적인 여호와 모쉐와 선지자들로 명하신 말씀 순종의 선한 행실들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텍스트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정리됩니다: 거룩함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선 찾아내는 것에서가 아니라, 더 한 층의 숭고한 빛이 되기 위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진보한다.

샬롬.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막 2:21-22)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아도나이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마쉬아흐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엘로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엘로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이로다." (고전 12:1-4)